

#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안열면 발전소 초토화”

### 이란에 최후통첩...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산 등 영향 이란 수용 여부 미지수...해협 개방 놓고 군사충돌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에너지 인프라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란에 해협 개방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하자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맞대응해왔다. 이란의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들 나라는 군사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시한을 제시하고 이란의 발전소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해협 개방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으로,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군사 행동을 확대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중부 지역 미군을 관찰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해안선에 있는 지하 미사일 시설 등을 5000파운드(약 2.3t) 폭탄들로 타격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던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대함 순항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기타 장비를 은밀히 저장하는 데 사용됐었다는 것이 미군의 설명이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 능력을 약화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 대이란 군사 압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강경 대응을 고수해 온 이란이 미국의 요구대로 해협을 개방할지는 불확실하다. 이 경우 미국이 실제로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란의 보복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 확대로 이어져 군사 충돌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전력비축유 방출 합의

### 국가별 규모 미국-일본-캐나다-한국 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비축유 방출에 합의한 가운데 방출 규모 기준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EA는 19일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30개 회원국이 약속한 총 4억2600만 배

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확인했다면서 국가별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방출 규모를 보면 미국(1억7200만 배럴)에 이어 일본(7980만 배럴), 캐나다(2360만 배럴), 한국(2250만 배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미국은 1억7200만 배럴 전량이 전력비

축유에서 방출되는 원유다. 일본은 국가 비축유에서 원유 5400만 배럴과 민간 산업에 부과된 의무보유분에서 258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방출한다. 캐나다는 원유 2360만 배럴을 증산하는 것으로 기여한다. 한국은 세부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 전체 4억2600만 배럴 가운데 원유가 3억100만 배럴, 석유 제품이 1억2500만 배럴로 각각 파악됐다. 유럽에서는 주로 정

제된 석유 제품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IEA는 비축유에서 나온 초기 물량이 이미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IEA는 “이번 공동 대응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상당한 완충 역할을 제공한다”면서도 “안정적인 공급 흐름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의 정상적인 재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적절한 보험 체계와 선박에 대한 물리적 보호가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머스크 “12월에 A16 칩 최종 설계 완료”

### 테슬라-삼성전자, 작년 25조원 규모 A16칩 생산 계약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생산하기로 한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최종 설계가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 CEO가 전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약간의 행운과 AI 활용에 따른 속도 덕에 우리는 12월에 A16

‘테이프 아웃’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나노미터(nm) 공정을 기반으로 한 테슬라 칩을 내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와 삼성전자는 지난해 165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